

경호 전공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강민완* · 권창기** · 김형승***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결론 및 제언	

〈요 약〉

대학생이 진로결정을 하는 것은 대학생활을 적응하면서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관한 생각이 입학 당시의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다. 경호 전공생의 경우 경호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경호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로 졸업 후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결정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경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결정의 연구모형을 설정한 다음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결정의 차이를 분석하고,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차이가 있다. 즉, 성별에 따른 정서적 적응은 남성이 높다. 학년 및 연령에 따른 정서적 적응은 학년 및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은 차이가 있다. 즉,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보류는 1학년이 높으며,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회의감은 1학년이 높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환경적 적응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보류, 진로결정 회의감이 낮고 진로결정 편안함은 높다. 정서적 적응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회의감이 낮다. 대인적 적응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편안함이 높다.

【주제어 : 경호관련 학과, 경호 전공생, 대학생활 적응, 진로의식, 진로결정】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 이학박사(제1저자)

** 경운대학교 경호학부 교수, 이학박사(제2공동저자)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박사과정(제1공동저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이라는 곳은 청년기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표적인 공간이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성의 전당이며 개인적 차원에서 잠재되어 있는 적성과 자질을 개발하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신장하고 인격을 계발하기 위해 연구하고 학습하는 곳이다. 따라서 어느 대학에서 어떠한 전공을 선택하여 수학하느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인적자원을 확보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한 개인이 어떤 분야를 전공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그 분야를 전공함으로써 장래 얻게 될 물질적, 정신적 보상뿐만 아니라 전공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 그리고 각 개인 스스로의 주관적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박명기, 1994).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공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경호의 분야도 이러한 맥락과 함께 한다. 새로운 전공이 생겨나는 것은 그 시대의 요구와도 부합된다고 본다. 날마다 각박해져 가며 고도화되는 범죄로 인해 여러 분야에서 경호를 필요로 하기에 사회에서는 경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적 공급을 필요로 한다.

대학생 시기는 청년들에게 많은 변화와 갈등을 야기 시킨다. 대학생들은 바람직한 적응을 통해 후기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로 진입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대학환경에서 심각한 부적응은 성공적인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박선영, 2003).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변인은 대학생들의 적응을 돕는데 필수적이다. 자기 능력에 대한 확신과 자기 가치에 대한 믿음은 다양한 요구와 역할을 필요로 하는 대학환경 속에서 적절한 대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응 수준을 예측해주는 변인의 평가에 있어서 대학생활과 밀접하고 대학생활에 특정한 것에 대해 평가해야 결과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예측해 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김은정, 1992).

청년기의 발달 과업 중 진로문제는 연도를 달리한 여러 연구에서 살펴보더라도 항상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사항의 상위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진로문제와 함께 높은 빈도로 나타난 성적문제 역시 진로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

려해 본다면 그 비중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문제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해야 하는 준비과정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학생생활 연구소 등에 도움을 받으러 온 학생들의 상당수가 진로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김효원, 2004). 숙명여대의 경우 대학생 문제 진단 검사를 실시한 연구(숙명여대 학생생활상담소, 1996)에 의하면 척도의 점수가 5점 만점 기준으로 진로 및 장래(M=3.22), 학업(M=3.09), 학교생활(M=3.04)을 나타내 이 세 영역에서 보통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1998년 한 해 동안 학생생활연구소를 찾아온 내담자의 문제를 복수응답을 허용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학업 및 진로문제(60.2%)로 나타났고, 정서적 문제(49.8%), 교우관계 문제(44.8%), 성격문제(42.1%), 이성 및 성문제(38.9%) 등이 그 뒤를 이었다(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98).

서양의 진로이론은 가족과 분리되어 자율성을 갖는 경우를 성숙된 측면으로 보는 반면에, 동양의 경우에는 집단주의를 강조하여 자신이 속한 조직의 환경 내에서의 선택을 강조하는 경향성을 보인다(Gysbers, Heppner, & Johnson, 1998). 개인주의로 대표되는 서구의 문화권에서의 직업 및 진로 선택은 개인적인 사건이며 자기표현과 자기실현의 기회로 간주는 반면에, 집단주의로 대표되는 동양권에서는 직업 및 진로 선택을 가족 혹은 집단에 대한 의도로 보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다(Osijpow & Fitzgerald, 1996).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호를 필요로 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인적 자원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고 있다. 최근에 경호 계열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진로결정의 문제가 진로 인식의 시작으로부터 진로 발달 분야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되어 오면서, 최근 진로 관련 연구의 경향들은 많은 대학에서 진로 미결정 학생들을 도와주는 더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방법의 개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또한 계속해서 진로결정과정의 충분한 이해와 학생들이 적재적소의 직업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한 더 나은 방법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김미희, 2002).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경호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자신의 원하는 목표, 즉 진로를 계획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대학생활을 하기 원한다. 일부 대학에서는 경호 계열 전공이 체육학부에 속해 있어서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달리 대학 입시를 위한 실기 고사를 준

비해야 한다. 인문, 자연 계열의 학생에 비하여 진로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지며,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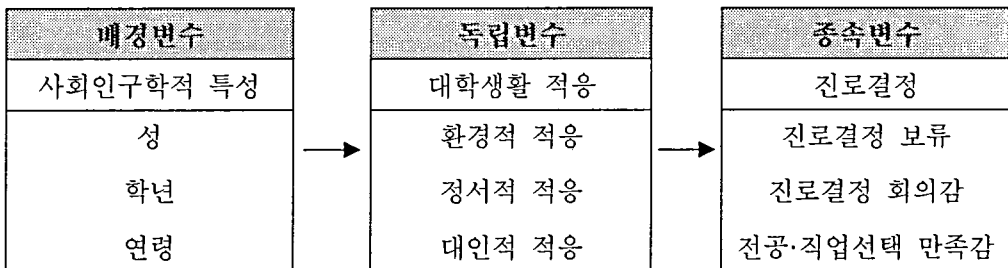
경호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진로결정을 경호로 하는 것은 대학생활을 적응하며 생활하면서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관한 생각이 입학 당시의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다. 경호 전공생의 경우 경호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경호 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로 졸업 후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으며,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는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결정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경호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결정의 연구모형을 설정한 다음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결정의 차이를 분석하고,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경호 전공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1> 경호 전공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

2) 연구가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 가설 1. 경호 전공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경호 전공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경호 전공생의 대학생활 적응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경호 전공생의 대학생활 적응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은 방송 매체나 매스컴을 통해 나타나는 국가 원수 등의 중요한 사람에게 경호원(Body Guard)을 붙임으로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신변 안전을 책임지는 행위를 생각하게 된다.

경호에 대한 정의는 정부형태나 경호조직의 형태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 의미에서의 경호를 정의할 때 “피경호인 보호”라는 대전제는 불변의 진리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호란 피경호인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하여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지 및 제거하기 위한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대통령경호실, 선발경호 교재, 1994).

경호의 종류는 크게 정부가 주체가 되는 공(公)경호와 영리단체가 주체가 되는 사(私)경호로 구분할 수 있다. 공(公)경호와 사(私)경호의 차이점은 <표-1>과 같다.

<표-1> 공경호와 사경호의 차이점(이영석, 2002)

구분	공경호	사경호
주체	정부기관(경찰)	영리기업
역할	일반시민(위해자)대상 법집행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고객을 위해 범죄예방, 경제적 손실보호
목적	공공질서 유지, 범인체포 법집행	고객들의 손실삼소, 재산보호, 예방적 측면
공권력 작용	법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	극히 한정, 사법권이 없는 실정
기구 구성	체계적, 조직적	인원이 제한된 소수인원만으로 비조직구성
물리적 지원	충분한 지원	제한된 자체적 지원

대학에서 요즘 사회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호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교적 선배들이 많지 않은 경호를 전공하는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도 중요하다.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Arkoff, 1968; Lazarus, 1976). 대학생활 적응이란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적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말한다. 대학생활 적응이란 적응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대학생과 대학 환경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Arkoff, 1968).

대학생활 적응은 개인적인 요소와 대학 환경에 따른 요소들로 매우 다양하며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Baker와 Siryk(1984)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에의 애착도의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학업적 적응은 초기 연구에서 학업 유지의 중요 요인이었지만 최근에는 인지적 학습능력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학업에 대한 동기, 요구에 부딪혔을 때의 행동, 학업 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만족감, 시간관리, 분명한 목적의식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적 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능력, 교수 및 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셋째, 개인-정서적 적응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등 개인의 인성 형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기존재의 본질, 위치, 역할 등 자기탐색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자신에 대한 신념과 수용적 태도로 심리적 여유를 가지

고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여 자기실현의 구체화 방향으로 행동을 결정짓게 되고 타인과는 동일시 공동체 의식을 가짐으로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넷째, 대학에의 애착도는 대학에 대한 유대 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의미한다(김효원, 2004).

2. 진로결정

진로란 개인이 일생동안 자신의 장래에 대하여 인식하고 탐구하며 이를 선택 결정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진로 혹은 생업이라는 말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애에 종사할 직업에 대해서 지니는 종합적인 의식이다. 직업적 소양, 가치, 지식, 기술 그리고 그 직업에 직결된 자아개념 등이 포함된다.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며 진로 계획에 큰 관심을 갖게 된다(Osipow, 1983; Super, 1957). 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은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 혹은 졸업 후 자기가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택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미결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김봉환, 1997).

진로결정 수준에 관한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진로 미결정, 진로결정, 결단성 부족 등의 개념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 미결정은 두 가지 하위 개념을 포함하는데 하나는 단순한 진로 미결정으로서 상황적으로 혹은 발달과정상 진로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를 뜻하며, 다른 하나는 만성적 무결정으로서 생활과 행동 전반에 걸쳐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이는 것이다(김봉환, 1997).

3.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결정의 관계

선행연구들에서는 대학생활 적응을 매우 다차원적인 현상으로서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두었지만 일반적으로 학업적 측면이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적응, 혹은 심리-정서적 측면에서의 적응만을 중심으로 다루어 왔다(정은희, 1993).

윤형환(1999)의 연구는 자아 정체감 변인을 매개로 진로결정 곤란이 대학생활 적응과 부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밝혔다. 정숙영(2002)은 사회적 적응이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나 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심리적인 요인으로서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대상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들을 밝혀내곤 했다.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 요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시간적 개념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변화가 있다. 과거의 대학생활 적응은 우리 사회의 사상적인 이데올로기 과정 속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대학 캠퍼스에 자유와 낭만보다는 투쟁과 탄압으로 인한 사상적인 영향을 크게 받았다. 현재의 대학생활 적응은 과거에 비해 개인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개인의 능력이 중요시 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정서적, 학업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경호 전공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어떠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의 전공명칭 가운데 “경호”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명칭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경호 전공생으로 규정하였다. 전국의 경호 전공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는데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 4월 현재 자료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이 26개 대학이며, 재학중인 전체 학생수는 약 1,500명이다. 학생들에 대한 성비는 남자 약 80%, 여자 약 20% 이며 유층표집법에 의해 조사를 하였다.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설문지가 이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2>와 같다.

<표-2>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

구 분		사례수(N)	백분율(%)
성	남자	282	79.0
	여자	75	21.0
학년	1학년	129	36.1
	2학년	116	32.5
	3학년 이상	112	31.4
연령	19-20세	135	37.8
	21-22세	114	31.9
	23세 이상	108	30.3
전체		357	100.0

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크게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학생활 적응, 진로결정으로 구성된다. 설문지의 구성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설문지의 구성

변수	내용	문항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 학년, 연령	3
대학생활 적응	환경적 적응, 정서적 적응, 대인적 적응	14
진로결정	진로결정 보류, 진로결정에 대한 회의감, 진로결정에 대한 편안함	10
전체		29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성, 학교명, 전공명칭, 학년, 연령으로 구성할 것이다. 성은 남성과 여성, 학교는 2년제, 4년제 구분하였고, 전공명칭에 경호를 포함하고 있는지 파악,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상의 3단계로 하였고, 연령은 19-20세, 21-22세, 23세 이상의 3단계로 측정하였다.

2)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 설문지는 대학생활에 있어서의 적응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Bakerd와 Siryk(1984)에 의해 개발된 대학생활 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a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1992)이 번안·사용한 척도이다.

선행 논문들의 자료에서는 67 문항, 네 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측정항목 모두가 대학생활 적응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 경우 대학생활 적응 문항 가운데 보다 축소된 좋은 문항을 고르고자 할 때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홍두승, 1994). 이 연구에서는 김경식(2005)에 의해 제안된 설문문항축소과정 절차를 준수하였다.

일차적으로 설명력이 1% 이하로 나타난 20여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대학생활 만족의 하위개념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각 하위개념에 적합지 않은 문항, 1개 문항으로 구성되는 요인, 요인 적재치가 0.4 이하인 경우 등 총 26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는 모두 3개의 요인과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4 참조).

3) 진로결정

진로결정 척도(Career Decision Scale)는 교육적, 직업적 미결정에 대한 유형론적 접근에 따라 Osipow, Carney, Winer, Yanico 및 Koschier(1976)에 의해 개발되었고, 고향자(1992)에 의해 번안·사용된 설문지이다. 진로결정의 하위개념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각 하위개념에 적합지 않은 문항,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 총 4문항을 제거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결정 척도는 모두 3개의 하위 척도의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5 참조).

3.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이 연구에서 사용 되어진 설문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체육학 전문가 및 경호학 분야의 박사 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설문지에 대한 검토 및 논평을 요청한 후 내용 타당도 및 문항의 적합성 여부를 논의하고 지적된 사항을 수정·반

영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결정의 설문지의 최종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 대학생활 적응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표-4>는 대학생활 적응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4> 대학생활 적응 설문지 요인분석 결과

설문문항	대학생활 적응		
	요인1	요인2	요인3
문 1. 대학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	.698	.236	.224
문 2. 대학 진학 결정 만족	.655	--	.378
문 3. 다른 대학으로 옮길까 하는 생각	.648	.248	.202
문 4. 휴학 후 나중에 졸업	.618	.287	--
문 5. 지금 이 대학에 다니는 것에 대해 만족	.527	--	.493
문 6. 최근 감정 조절 어려움	.105	.729	--
문 7. 최근 우울하고 울적함	.103	.692	.181
문 8. 최근 쉽게 화나곤 한다	.163	.667	-.143
문 9. 최근 머리가 아플때가 많다	--	.616	--
문10. 최근 피곤할 때가 많다	-.255	.495	.141
문11. 최근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173	.409	.111
문12. 원하는 만큼 마음껏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	--	.752
문13. 친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많이 맺고 있다	.160	--	.746
문14. 대인관계 기술 충분히 가지고 있다	.107	--	.546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2.971	2.547	2.087
Total % of Variance	14.148	12.128	9.937
Cumulative %	14.148	26.276	26.213
Cronbach's α	.795	.706	.613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생활 적응은 3개의 하위 요인을 가진 총 14개 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요인1(요인적재치: .527~.698)을 환경적 적응, 요인 2(요인적재치: .409~.729)를 정서적 적응, 요인3(요인적재치: .546~.752)을 대인적 적응으로 명명하였다.

2) 진로결정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표-5>는 진로결정 설문지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5> 진로결정 설문지 요인분석 결과

설문문항	진로결정		
	요인1	요인2	요인3
문 1. 호감가는 직업들 가운데 결정 고민	<u>.795</u>	--	-.108
문 2. 적성, 능력을 잘 몰라서 결정 고민	<u>.672</u>	.350	.129
문 3. 원하는 하나의 직업을 찾기가 힘들	<u>.649</u>	.184	.159
문 4. 진로 선택 보류	<u>.641</u>	.301	.217
문 5. 현실적인 진로 모색	--	<u>.821</u>	-.148
문 6. 호감 가는 직업의 필요성	.234	<u>.671</u>	.298
문 7. 관심 분야에 적합한 진로결정	.409	<u>.624</u>	.178
문 8. 이상적인 진로에 대한 확신	.362	<u>.495</u>	.325
문 9. 전공에 대해 편안함 느낌	--	.107	<u>.809</u>
문10. 진로결정으로 인한 편안함	.117	.102	<u>.804</u>
Rotation Sums of Squared Loadings Total	2.418	2.283	1.740
% of Variance	17.272	16.305	12.429
Cumulative %	17.272	33.577	46.006
Cronbach' α	.745	.722	.618

<표-5>에 의하면, 진로결정은 3개의 하위 요인을 가진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 연구에서는 요인1(요인적재치: .641~.795)을 진로결정 보류, 요인2(요인적재치: .495~.821)를 진로결정 회의감, 요인3(요인적재치: .537~.761)을 진로선택 편안함으로 명명하였다.

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경호 전공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연구대상의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관리자의 협조를 받은 후에 조사대상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자기평가기입법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완성된 설문지는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및 진로결정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t-test 및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이 연구의 가설 1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다.

<표-6>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에 대한 t검증 및 f검증

구 분		대학생활 적응		
		환경적	정서적	대인적
성	남성	3.422±.840	3.019±.676	3.211±.739
	여성	3.450±.881	2.653±.796	3.284±.774
	t값	-.253	3.647***	-.751
학년	1학년	3.427±.991	2.764±.714	3.160±.798
	2학년	3.317±.756	3.037±.740	3.224±.708

	3학년 이상	3.544±.745	3.048±.662	3.306±.720
	f값	2.060	6.383**	1.155
연령	19~20세	3.398±.954	2.782±.737	3.165±.796
	21~22세	3.315±.795	2.845±.682	3.271±.708
	23세 이상	3.585±.739	3.245±.638	3.256±.720
	f값	2.966	15.123***	.748

*참고 : ()는 사례수임. 평균±표준편차. * p<.05, ** p<.01, *** p<.001

<표-6>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정서적 적응은 남성(m=3.019)이 여성(m=2.653)보다 높다. 학년에 따른 정서적 적응은 3학년 이상(m=3.048)이 1학년(m=2.764)보다 높다. 연령에 따른 정서적 적응은 23세 이상(m=3.245)이 19~20세(m=2.782)보다 높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정서적 적응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정서적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높으며 생리적인 영향으로 인한 정서적인 영향이 남성보다 크게 미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학년 및 연령에 따라서는 학년 및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서적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 경험이 풍부해 지고, 연령이 많을수록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 조절능력도 좋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듯 학년 및 연령이 증가할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선행 연구들(김효원, 2004; 신지영, 2000; 윤형환, 1999)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진로결정

이 연구의I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t검증 및 f검증을 실시하였다.

<표-7>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의 차이에 대한 t검증 및 f검증

구 분		진로결정		
		보류	회의감	편안함
성	남자	2.812±.759	2.574±.740	3.248±.823
	여자	2.703±.880	2.443±.745	3.186±.872
	t값	1.065	1.361	.568
학년	1학년	2.854±.786	2.598±.774	3.135±.892
	2학년	2.864±.736	2.609±.732	3.340±.736
	3학년 이상	2.636±.819	2.421±.703	3.241±.851
	F값	3.136*	2.340	1.858
연령	19-20세	2.837±.775	2.613±.752	3.155±.886
	21-22세	2.866±.823	2.633±.744	3.282±.769
	23세 이상	2.648±.746	2.372±.703	3.285±.829
	f값	2.559	4.727*	.994

*참고 : ()는 사례수임. 평균±표준편차. * p<.05

<표-7>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회의감은 남성(M=2.812)이 여성(M=2.703)보다 높다. 학년에 따른 보류감, 회의감은 2학년(M=2.864, 2.866)이 3학년 이상(M=2.421, 2.372)보다 높으며, 편안함은 3학년 이상(M=3.285)이 1학년(M=3.115)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3가지 하위요인에서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으로 남성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우리나라 정서에 비추어서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진로결정 보류에서 2학년과 3학년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대학에 진학할 당시에 가졌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대학생활 1년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3학년이 지나고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될 수록 진로결정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진로결정 보류 및 회의감이 적어진다고 추론될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는 진로결정 회의감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 진출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며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이 높아져 회의감도 적어질 것이며, 편안함을 느낄 것 이라 추론할 수 있다. 김효원(2004)의 연구에서는 전공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진학을 했거나 대학환경이나 부모의 결정 등 다른 변인에 의해 전공이 결정되어서 진로결정 수준이 성별, 학년,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경호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학년별로 차이가 났다.

3.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결정

이 연구의 가설 3은 "경호 전공생의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8>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간의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1. 환경적 적응	1					
2. 정서적 적응	.297***	1				
3. 대인적 적응	.363***	.204***	1			
4. 진로결정 보류	-.282***	-.157***	-.126*	1		
5. 진로결정 회의감	-.426***	-.248***	-.232***	.564***	1	
6. 진로결정 편안함	.368***	.193***	.372***	-.311***	-.407***	1

*** p<.001

<표-8>과 같이 환경적 적응은 진로결정 보류($r=-.282$), 진로결정 회의감($r=-.426$), 진로결정 편안함($r=.368$)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서적 적응은 진로결정 보류($r=-.157$), 진로결정 회의감($r=-.248$), 진로결정 편안함($r=.193$), 대인적 적응은 진로결정 보류($r=-.126$), 진로결정 회의감($r=-.232$), 진로결정 편안함($r=.372$)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1)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결정 보류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 보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9>와 같다.

<표-9>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 보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b	β	t	Sig
(상 수)	3.905	.234		16.707	.000
환경적 적응	-.233	.052	-.252	-4.472	.000
정서적 적응	-.086	.059	-.079	-1.468	.143
대인적 적응	-.019	.058	-.018	-.332	.740
R ²	.086				

<표-9>와 같이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인 환경적 적응($\beta=-.252$)은 진로결정 보류에 부적(negative)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환경적 적응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보류는 낮아진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3개의 독립변인은 진로결정 보류 전체 변량의 약 8.6%를 설명해 주고 있다.

2)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결정 회의감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 회의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 회의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b	β	t	Sig
(상 수)	4.256	.206		20.648	.000
환경적 적응	-.317	.046	-.362	-6.881	.000
정서적 적응	-.130	.052	-.125	-2.502	.013
대인적 적응	-.075	.051	-.075	-1.468	.143
R ²	.203				

<표-10>과 같이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환경적 적응($\beta=-.362$), 정서적 적응($\beta=-.125$)은 진로결정 회의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환경적 적응, 정서적 적응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회의감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3개의 독립변인은 진로결정 회의감 전체 변량의 약 20.3%를 설명해 주고 있다.

3)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선택 편안함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선택 편안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표-11>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선택 편안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B	SEb	β	t	Sig
(상 수)	1.205	.231		5.213	.000
환경적 적응	.247	.052	.251	4.784	.000
정서적 적응	.074	.058	.064	1.271	.205
대인적 적응	.300	.057	.268	5.233	.000
R ²	.198				

<표-11>과 같이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 환경적 적응($\beta=.251$), 대인적 적응($\beta=.268$)은 진로결정 편안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환경적 적응, 대인적 적응이 높을수록 전공·직업선택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3개의 독립변인은 전공·직업선택 만족감 전체 변량의 약 19.8%를 설명해 주고 있다.

대학생활 적응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환경적 적응이 진로결정에 대한 영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대학에 대한 인식 및 자신의 학교에 다니는 것에 대한 만족감에 따라 진로결정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의 학교가 사회적 위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또한 정서적 적응은 진로결정 회의감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는 진로 미결정에 있어서 개인의 감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요인인 진로결정 편안함은 대인적 적응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수님, 선·후배, 교직원 등의 대인적 적응을 통해서 전공에 대한 확신도 높아지고 진로결정에 대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추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에서의 연구방법 및 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차이가 있다. 즉, 성별에 따른 정서적 적응은 남성이 높다. 학년 및 연령에 따른 정서적 적응은 학년 및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은 차이가 있다. 즉,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 보류는 1학년이 높으며, 연령에 따른 진로결정 회의감은 1학년이 높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즉, 환경적 적응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보류, 진로결정 회의감이 낮고 진로결정 편안함은 높다. 정서적 적응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회의감이 낮다. 대인적 적응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편안함이 높다.

2. 제언

이상의 결과 및 논의를 종합해 보면, 대학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진로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생활 적응에 내재되어 있는 대학생활 만족을 고려하여 이들 변수간의 효과를 직간접적 인과효과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에 따른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는 직업분야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 고향자(1992). 「한국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수준의 분석 및 진로상담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 김경식(2005). 『스포츠과학 연구방법론』. 무지개출판사.
- 김미희(2002). 「대학생의 진로계획과 진로신념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정(1992). “대학생들의 학업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연세상담연구, 8, 85-114.
- 김효원(2004).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 김명영(2005). 「경호관련 전공자 취업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 대통령 경호실(1994). 『선발경호 교재』. 대통령 경호실.
- 박명기(1994). “체육교사의 역할수행 현황과 직업만족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 1, 63-79.
- 박선영(2003).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혜영(2005). 「대학생활적응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석사 학위논문, 한국기술교육대학교대학원.
- 신지영(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오세용(2004). 「경호시스템의 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대학원.
- 원호택, 이명선, 김순진(1998). “서울대생의 스트레스 실태조사”. 「학생연구」, 24, 80-92.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윤정(2000).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진로계획」.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윤형한(1999). 「대학생의 의사결정 유형에 따른 진로결정 곤란과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 이영석(2002). 「경호무도 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숙영(2002). 「사회적 적응과 의사결정유형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석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정은희(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 교대학원.
- 현진원(1992). 「완벽주의' 성향과 평가수준이 과제수행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대학원.
- 홍두승(1994). 「사회조사분석」. 서울: 서산출판사.

2. 국외문헌

- Arkoff.(1968). Adjustment and mental health. Magraw Hill Book Company.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Gysbers, N. C., Heppner, M. J., & Johnston, J. A.(1998).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Guidance Journal, 59, 433-439.
- Harren, V. A.(1979). A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Los Angeles, CA :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Lazarus, R. S.(1976). Patterns of adjustment(3rd).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Yanico, B., & Koschier, M.(1980). The career decision scale(3rd rev.). Columbus, OH: Marsthon Consulting and Press.
- Osipow, S. H.(1983).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3r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Osipow, S. H. & Fitzgerald, L. F.(1996). Theories of career development(4th

edition), MA : Allyn & Bacon.

Sprinthall, N. A., & Collins, W. A.(1995). Adolescent psychology: A developmental view. (Third Ed.). New York: McCraw-Hill.

Super, D.(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 Harper & Row.

ABSTRACT

The Effects of Security Service-major College Students' Adjustment on Career Decision

Kang, Min Wan
Kwon, Chang ki
Kim, Hyung Seung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was to investigate how college students' adjustment (CSA) affects their career decision (CD), based on analy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djustment and their career decision. For the purpose of articulation of the relationship, this study implemented factor analysis to find out the sub-factors of CSA and those of CD and developed conceptual frameworks for CSA and CD. As results, this study reveals that, at first, male students had higher scores in the affective adjustment scale and the olders and the higher graders had higher scores than the youngers and the lowers. Secondly, freshmen showed higher scores in relation to the career decision withholding factor. With regard to students' regret for career decision, 19 to 20 year-old-students demonstrated higher scores. Thirdly, students had lower scores in the career decision withholding factor and in the factor of regret for career decision when they had higher scores in social adjustment. Students scored higher in affective adjustment they scored lower in regret for career decision. Also, they scored higher in the factor of career decision stability when they had higher scores in the factor for personal relationship.

【Key words : guard and security-major, security service-major collage students, collage student' adjustment, career decision】